

세상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예술

카워드로 보는 **名畫** 이야기

사유(思惟)

사유하는 존재의 힘

'무언가를 생각하는 일'은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행복한 능력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계절이 변하듯 끊임없이 움직이는 마음 속 생각들은 때론 실재하는 현실에 상상력이 더하는 일과도 같다.

그리고 이것 저것 생각의 꼬리를 물다보면 어느새 손쉽게 고민거리가 풀리는 일도 종종 보고는 한다.

고로 인간은 생각하고 사유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세계를 새롭게 해석해 내는 존재임에 분명하다.

예술가의 사유는 특히 익숙한 세계를 낯설게 바라보게 한다.

같은 풍경도 예술가의 사유를 거치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관객들은 작품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감각의 세계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사유가 담긴 예술작품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도 하며 이를 통해 공감과 성찰의 여지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결국 예술가의 사유는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하기에 가치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문형선작 'Utopia Image'

<작가 제공>

도 어딘가 익숙한 이 장면은 우리가 잊고 있던 자연에 대한 감응을 다시 새롭게 일깨운다.

특히 화면에 등장하는 꽃과 나무들은 현실의 구체적 환경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작가의 내면을 경유하면서 새로운 질서로서 치환된 결과물이라 하겠다.

그렇게 작품 속에서 자연은 대상에서 내면의 형상으로, 또한 풍경에서 이상적 이미지로 변모한다. 그리고 화면의 공간은 작가의 감정과 기억이 머무는 자리이자, 심리적 인식이 색채와 공간의 리듬으로 가시화되는 장이 되는 것이다.

특히 그의 '유토피아'는 관념적 이상향이 아닌 경험과 기억의 층위에 세워진 '심상의 공간'인 것이다.

작품 속 고향의 산세와 오묘한 형상의 꽃, 그리고 세계수처럼 우뚝 선 나무는 환상적인 장면을 이루면서도 깊은 정서적 울림을 자아낸다.

또한 작가는 이상세계에 대한 표상이 인간 무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 그의 유토피아는

바로 '개인의 체험'과 '시대적 감수성'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생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화면 위에 펼쳐진 색과 형상의 울림은 관객의 기억과 감정을 만나 또 다른 풍경으로 확장된다. 그렇게 작품은 하나의 이미지로 머무르지 않고, 각자의 내면에서 새롭게 완성돼간다.

#사유의 풍경2-마크 로스코 <이것은 색이 아닌 감정입니다>

마크 로스코는 20세기 추상표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 단순한 색면을 통해 인간의 영적 감정, 존재의 깊이, 침묵과 명상을 표현한 작가이다. 그는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느끼고 사유하는 경험이라 말했다.

최소 가로 3m가 넘는 거대한 캔버스에 펼쳐진 큼지막한 색면들과 뭉개진 가장자리가 이끌어내는 몽환적인 이미지는 너무 아름답다. 이처럼



'마크 로스코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

<위키피디아 검색>



마크 로스코작 'Orange and Yellow' <위키피디아 검색>

그의 작품에서는 색감이 가져오는 효과가 큰데, 색감의 변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뚜렷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크 로스코의 회화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풍경을 묘사하지 않는다. 대신 화면 위에 놓인 단순한 색의 층들이 인간의 감정과 존재의 깊이를 조용히 드러낼 뿐이다. 이렇게 그의 작품에서 색은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내면의 정서와 사유의 공간이 된다.

"나는 추상화가 아니다. 나는 색이나 형태에 관심이 없다...나는 단지 비극, 황홀, 파멸 같은 인간의 기본 감정들을 표현할 뿐이다"

이 모든 여정은 결국 '어떻게 하면 인간의 가장 내밀한 감정을 그림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크 로스코의 치열한 고민의 결과였다.

그러므로 작가는 커다란 캔버스에 큼지막한 색면 그리고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심연의 색채의 레이어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천천히 그리고 깊게 작품을 바라보기를 요구한다.

마치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 그간 잊고 지낸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용기를 주는 것처럼, 그의 그림은 명확한 답 대신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예술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단순히 재현하는 행위에서 출발하지만, 그 본질은 인간의 사유(思惟)에서 비롯된다.

예술가는 이러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옮기기 보다, 자신만의 사유를 통해 다시 바라보고 재구성한다. 결국 예술 속 풍경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세계라기보다,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사유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예술에서 빛나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세계를 깊이 바라보려는 인간의 사유이다.

사유는 예술가에게는 창작의 원천이 되고, 관객에게는 성찰의 계기가 된다. 결국 예술은 보이는 것 너머를 사유하게 하는 힘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세계와 자신을 다시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예술 속 풍경은 단순한 자연의 재현이 아니라, 인간의 사유가 머무는 자리에서 형성된 또 하나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 풍경속에서 우리는 현실과 기억, 감정과 시간이 교차하는 지점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각자의 사유를 이어가게 된다.

<이현남·문화비평, 갤러리현 대표>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 문의) 062-464-3466